

기독교문화와 복음의 확장

하 도 례

◇ 목 차 ◇

1. 아시아에 있어서 신교교회의 성장
2. 아시아는 기독교신자가 가장 적은 대륙
3. 아시아 종족종교들과 비교하면 기독교는 작아보인다
4. 다수 종족종교들이 성장하고 있다
5. 동양종교들의 자력 구원주의
6. 서양과 그 실수
7. 선교사 - 문화변혁의 대리자
8. 한국교회가 주의할 점
9. Incarnational Worship & Rehearsal Worship
10. 문화와의 관계
11. 오늘날을 위해 필요한 것들

1. 아시아에 있어서 신교교회의 성장

최근에 교회성장은 개신교가 크게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63년부터 1978년 (16년간)의 모든 기독교의 전 세계 성장은, 같은 기간 중, 이슬람교의 20.5%에 비해 겨우 1.9%일 뿐이다. 또 기독교의 매우 낮은 이 숫자는 로마천주교와 동방정교까지 포함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다른 어떤 대륙보다 많은 기독교 신자를 - 적어도 명목상이나마 - 가진 유럽에 있어 마이너스 성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신교만의 교회성장은 별개의 문제이다. 비록 유럽에서는 성장이 있었다가 다음에 손실이 있는 것 같으나 16년간의 성장율은 0에 가깝다. 반면 같은 기간에 북미는 21.4%, 남미는 303%, 아시아에서는 315%, 그리고 아프리카에선 509%에 달한다. 이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높은 성장율은 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의 소위 제3세계에서 이다.

그런데 지난 16년간 아시아에서 315%라는 신교의 성장은 한국교회만이 성장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최근에 들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인

일본의 개척교회(the Reformed Church of Japan)가 신자의 예배 참석수에 있어 다른 모든 일본교회 성장율을 선도하고 있으며, 헌금을 바치는데 있어서도 1.2위에 있다는 소식은 정말 기쁜 일이다.

2. 아시아는 기독교신자가 가장 적은 대륙

그러나 아시아는 세계 모든 대륙 중에서 신자가 제일 적은 대륙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선민들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 2,000년이 나 살았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던 바로 그 대륙이 이런 형편이다. 다음 통계를 비교해 보자.

대륙	신교인수	총인구	%
아프리카	68,465,000	412,000,000	16.6
남아메리카	10,800,000	348,000,000	3.1
아시아	40,332,000	2,304,000,000	1.75

우리가 왜 아시아가 모든 대륙 중 가장 적은 기독교신자수를 가졌는가를 스스로 물어본다면 어떤 가능한 답변이 머리속을 스칠 것이다. 아시아는 여행하기에 장애가 되는 자연적인 광대한 사막들, 세계의 지붕이라 하는 험준한 산악지대, 아시아의 광활한 지역을 내포한 러시아, 몽고, 만주 등의 유목민들과 큰 이민이 많다. 역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토착화시키는데(in planting) 큰 난점을 가져온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안정한 교회성장을 지연시킨 것 같이 생각된다.

3. 아시아 종족 종교들과 비교하면 기독교는 작아 보인다.

아시아에서 직면하는 기독교의 난점들 중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아시아에 있는 크고 오래된 종족 종교들일 것이다. 종족종교(ethnic religions)라 함은 아시아인의 문화와 사상을 형성해 왔고, 지도해 온 오래된, 위대한 종교들을 뜻한다. -특히 가장 활발하고 진보했으며, 문화적으로 아시아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종교들- 나는 인도와 그 종교들인 힌두교와 Sikhism과 불교를 생각한다. 또한 거대한 중국과 그곳의 유교, 도교, 또 거기있는 불교를 생각해 본다. 또한 일본과 신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하메트교와 많은 국가들과 사람들에게서 형성되어 온 이 종교의 거의 동질적이고 단일체적인(monolithic) 문화를 생각한다.

또한 여기에 수천만의 아시아인들을 가진 공산주의도 빠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일종의 유사종교요, 정신적 충성(Spiritual loyalty)을 요구하는 가상(would-be)의 절대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요, 매우 짧은 기간에 가공할 방법으로 수천만의 생활과 문화적인 양식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 있는 종교단체들의 규모와 그렇게 많은 지난 세기들간에 아시아인의 정신과 생

활양식들을 사로잡은 것을 생각해 보라! 오늘날 (Encyclopedia Britannica의 통계를 사용하면) 아시아에는 매 기독교인 한명당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는 로마카톨릭과 동방정교도 포함됨) 기독교인 1명당 2명의 유교신자; 3인의 불교신자; 1인의 신도교인; 5인의 이슬람교인; 그리고 6인의 힌두교인의 비율이 나온다. 나는 여기에 공산주의자와 도교, 샤머니즘, 또 많은 다른 종교 신자들을 계산하지 아니했다. 이 사실은 기독교신자 1명당 17명의 강하고, 오래된, 고도로 발달된(문화화된) 제종교의 신도를 상대로 하고 있음을 뜻한다. 동시에 같은 기간동안(1963~1978년간) 기독교가 69.8% 성장한데 반해 일본의 신도는 22.4%, 도교는 42.9%, 유교는 48.7%씩 각각 쇠퇴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큰 감소는 중국에서 그리 잘 입증될 수 없으나 Encyclopedia Britannica의 통계에는 그러한 결과를 게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시아에는 기독교신자들 보다 세배나 많은(사이비) 신앙가들(religionists)이 있다. 또 무서운 사실은 아시아의 대종교 중 가장 큰 종교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4. 다수 종족종교들이 성장하고 있다.

1963년부터 1978년까지 이슬람교는 26% 성장했으며, 힌두교는 34%, 불교는 54.2%, 기독교는 그보다 조금 빠른 69.8%씩 성장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그들의 강력한 세력에 있어 수백만의 마음과 가슴을 붙잡고 있는 강력하고 거대한 종교들도 마찬가지로라는 점이다. 내가 먼저 아시아에서 모든 기독교신자들의 성장비율보다 훨씬 더 빠른 것은 신교뿐이라고 말한 것을 한번 더 상기시켜야 하겠다. 그 성장율(16년간의 315%)은 타 종교에 비하면 놀랄만한 성장이다. 그러나 신교신자의 수는 전체 기독교신자 86,358,000명의 절반이 채 안되는 40,332,000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이 매우 분명한 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통계숫자는 기독교가 잘 침투되어 있고, 거대하고 강력한 종교들, 놀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종교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규모나 성장과 그 땅에 얼마나 오래 점유되어 왔느냐의 문제와 그 신앙들의 신봉자들에 의해 유지되어 온 모든 영역에 있어 정권과 지도체제의 바탕들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신자들의 태도와 심성(mind-set) 동기유발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들이 왜 85%의 남아메리카인들이 기독교를 고백하고, 아프리카인의 25%가 고백하지만 아시아인은 겨우 2%밖에 기독교를 고백하지 않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가?

인간적으로 말해서 아시아는 기독교 지역 중 가장 강한 지역이 되었어야 할 것 같아 보인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시아적 종교라 해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예를들면 철학적이며, 종교적인 사상을 여러 세기동안 학습한 전통을 가진 인도와 중국의 반성적(reflective)이고, 명상적인(meditative) 민족이 기독교의 정신적 공헌을 가장 잘 감식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는 몇가지 따져봐야 할 고려점들이 있다.

첫째 아시아에는 아프리카 처럼 원시민족들로 가득차 있지 않다. 폴 툴리히(Paul Tillich)는 관찰하기를 “모든 선교지들 중 원시민족과 소통하는 것(전하는 것; communication)은 개화되고 교육받은 민족들에게 보다 항상 더 쉬운 법이다. 그 이유는 원시민족의 성품은 보다 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 말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원시종교는 한분 최상의 하나님, 속죄제의 개념, 또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덧붙여야 한다.

5. 동양종교들의 자력 구원주의

동양의 가장 고도로 발달된 종교들은 인간에 대한 깊은 자신감과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자주 지적을 받아 왔다. 가장 특기할 만한 현상은 B. C. 6세기 사변적이고, 자력적(auto-soteric) 종교들에서 보여진 사제독점(Priest-craft)으로 부터의 혁명이 그것이다. 인도에서의 불교, 중국에서의 유교와 도교, 페르시아에 있어서 조로아스터교 이 모두는 B. C. 6세기의 거대한 아시아적 종교혁명을 예증해 주는 것들이다.

오늘날 아시아의 대종교들은 요가나 참선(meditation)에 의한-그러나 그것은 인간적 공로이다. -자력구원(self-salvation)을 가르친다. 서양의 종교들은 특징적으로 동방의 자력구원에 대해 타력구원 종교이다. 또한 동양종교에서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구별이 없고, 인간이 잠재적으로 신적이 되는, 즉 무한자와 존재론적 결합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에서 반영된 동일한 정신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구원은 구출하는 하나님에게의 겸손한 순종으로 생각되어지지 않고 무한자와 합일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알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는 그의 「인도사상과 그 발전」(Indian Thoughts and Its Development)이란 책에서 지적하기를 인도의 브라민(Brahmin) 사제들은 세계정신(world-soul)의 비밀을 통찰하여 마력적 근원적 힘(Primeval Force)에 관한 지식과 마력을 얻기를 목표로한다고 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초인-니체(Nietzsche)의 무시할만한 초인보다 훨씬 더 위대한-이라 여긴다. 니체의 초인은 인류 위에 높여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브라민들은 자기들의 전 우주 위에 있는 초인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것은 소위 고급 종교들이 기독교에 저항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영원한 구별을 가르친다. 우리는 죄와 타락, 인간이 악의 영에게 종이 되어 있음을 가르친다. 인간은 자기를 구원하기에 전적 무능력함과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어떤 자가 필요함을 가르친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상에 의한 것도 아니며, 정화의례(정결법 rites of purification)이나 선행, 구제에 의한 것도 아니요, 어떤 집요한 요가라도 우리의 구원을 획득할 수 없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피를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받고 보호를 받아야 할 양(羊)임을 가

르친다.

6. 서양과 그 실수

또 다른 고려는 물질과학의 영역과 물리력에 있어 서양의 휘황찬란한 성공은 자기들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또 먹을것을 모으거나 사냥하면 또 그런 힘도 없이 보잘것 없는 집들을 세우려고 투쟁하는 원시민족들에게 깊이 인상을 심어주었다. 배나 화약, 인쇄술, 고도로 조직화되고 훈련된 군대와 통치체제의 위대한 마력을 갖고 복음이 그들에게 오게 되었다. 반면에 중국과 인도, 일본은 유사한 물건이나 똑같은 것을 벌써 가지고 있었고, 또 때로는 어떤 것은 훨씬 더 앞서 있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것을 재빨리 배우거나 습득해 버렸다. 그들은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온 서양인들의 물리적인, 문화적인 조예(재능)에 깊이 인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그들의 지도자들 중 가장 현명한 자들-은 동양이 탐입하고 능가하는 영적(정신적) 훈련들을 등한시하고, 심지어 멸시하는 것과 물질주의, 세속주의 등의 약점을 알았다. 소위 서양 기독교인 상인, 군인, 정부요원들-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보여준 영적인 힘을 과시했던가? 사랑과 평화와 자비, 기독교 신자의 덕, 의 없는 것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금식, 참선, 기도 등 동양이 항상 숭상해 오던 강건한 영적인 힘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J. H. Bavinck라는 선교학자가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양이 준 충격은 기계공학적, 경제적 영역에서 있어 왔다. 그러나 서양은 그 민족의 종교생활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 결과는 종교의 진공상태이다. 왜냐하면 서양은 그 자신의 문화의 깊숙한 충동들과 경향들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서구와 그 문화의 소유자인 선교사는 자기들이 접근하는 그 문화에 몰두하여 오히려 커다란 위험과 위기를 드러낸다.”

바빙크는 “종교는 문화적 부수현상이나 문화적 부산물이 아니라 심오한 윤리와 사회적 세력, 즉 인간문화에 궁극적인 통합성을 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Bronislaw Malinowski를 인용하고 있다. Van Baal은 지적하기를, “비서구문화의 구성원들은-그가 원시적이건, 고도로 문명화 되었건-자연과의 내적공생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였다. 그들은 새것을 피하고 자신들의 신적 조상들이 준 거룩한 규칙들에 집착한다”고 했다.

바빙크는 말하기를, 그러나 서양은 그가 만난 다른 종교들 속에 지도적인 문화적 역할을 했는 반면에 그 자체는 종교적으로 불분명하고, 혼란되었으며, 불확실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서양은 그 자체가 내적 유약함과 무의미라는 위기 속에 있었다. 이것은 기독교의 약점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세속화되고 연약한 기독교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약점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와 그의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대부분 선교운동이 성공적으로 충분히 자각되어 오지 않은 것은 부인할 바 못된다. ……선교운동은 서구문화의 근본적 개념들과 동인들을 충분히 비판해 오지 못했다. 선교활동은 서구 과학과 또 인생을 부유케 하는 서

구의 수용능력을 받아 들이는데 있어 너무나 천진난만 소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축복은 또 한 감추인 저주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현대생활과 사상간에 화해할 수 없는 양분법(dichotomy)이 너무나 자주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 상황에서 바빙크는 또 말하기를, “선교자의 커다란 문제는 선교사와 선교사를 피송하는 교회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7. 선교사-문화변혁의 대리자

로마 천주교의 유명한 선교사며 인류학자인 Luzbetak는 그가 선교사의 문화적 역할을 강조할 때 Bavinck의 요지를 좀 더 생생하게 만든다. “어떤 선교사도 그의 외관상 순수한 영적인 행위에 대한 여러 각도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다. 선교사들이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든지, 않든지간에 그들은 문화변혁의 역할을 하는 대리자들이다.” 이것은 단순히 로마 천주교회의 의견만이 아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옴으로 시작된 인도와 아프리카에서의 변화에 대해 우리는 잠깐 생각할 것이다. 예일대학의 Latourette는 선교사들과 기독교 공동체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중국의 문화적인 변화에 기여했던 9 가지 공헌을 열거했다. 한국에서는 어떠한가를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곳에서 민중과 부녀교육, 고아원, 병원 설립 등 기독교 증거와 봉사의 매우 새롭고 힘있는 분야의 공헌이었다.

Luzbetak는 계속하여, “……사회 속에 교회를 세워 기반이 튼튼하게 하며, 영속시키는 방법으로 그 사회의 문화를 통하는 것 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선교사들은 그들의 소명에 따라 타협없는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선교방법 연구는 문화연구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한다.

8.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양식과 문화적 우수성.

이 논문에서는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양식과 문화적인 우수성을, 죽음 후에 천국에서 산다는 멧세지와 함께 세상에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위로서 우리의 말을 증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점을 역설했다. 그는 말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인 백성이니(a peculiar people)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벧전 2 : 9, 10上)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일찌라도 그들은 족속(genos)이요, 나라요, 백성(laos)이라고 베드로가 강조해야 했던 것이 이상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출 19 : 5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한 족속으로 뭉쳐진 존재이며, 유일한 언약과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하신 생활양식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을 본다. G. Vos에 의하면 출 19 : 4 ~ 6의 본문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소유하셨던 이스라엘에서의 특별한 왕국과 관련된 고전적

인 본문이라고 한다. 베드로는 그 왕국과 동일한 것이 신약교회에 존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정결한 음식들을 먹으며 구약의 의식적인 율법을 모두 지키라는 명령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보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제사장과 왕으로서, 교회가 제사장답고 왕다운 행위로서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 보이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의 본문을 주의하여 보라. “너희가 이방인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벧전 2 : 12) 불신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본 후에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주목하라. 베드로는 우리의 입이나 우리의 멧세지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선한 일을 함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 : 벧전 2 : 15)

바울이 그레테에 있는 신자들에게 강조한 것도 역시 이것인데 이는 그가 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극도로 낮은 도덕적 풍조와 자질을 지적하기 때문이다. 그는 디도에게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베드로가 한 것 같이 그도 출 19장을 다시 인용한 것을 새삼 주목하라. 우리는 이 반복되는 것을 지나쳐서는 안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이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a peculiar people)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를 책망하라.” (딤후 2 : 11~15上)

제사장과 왕이라는 이 제목을 요한이 계시록에서 처음부터 반복한다. (1 : 6 다시 5 : 10과 20 : 6에서) 선지자적 역할에 대하여 명백하게 관련된 언급은 없다. 다시말하면 그 구절은 보기에 제사장과 왕들이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을 한사람의 증인으로 (1 : 2), 그의 책을 예언서로 (1 : 3), 그리스도를 “오직 한분의 신실한 증인”으로 (1 : 5) 선포한다. 그러므로 선지자적 직무는 거기에 분명히 있다. 그러나 제사장적 역할과 왕적 역할이 분명하게 돋보이며 한 언약된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속성이 다시금 서로 연결되어진다. 그리고 베드로는 벧전 2 : 15에서 “선한 일을 함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라고 그의 강조점을 되풀이 한다.

9. 한국교회가 주의할 점

나는 교회성장에 관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 논문을 시작했다. 교회에서의 성장은 오늘날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이다. 우리 교단과 많은 타 교단은 교회확장과 성장을 위한 대단한 목

표를 설정해 왔으며 이것은 대단히 좋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증거하며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과 왕이 되는 것이 긴급하다는 모든 강조점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우리가 고려해야만 하는 위험한 문제들과 무시되었던 것들과 실패한 것들 중 일부를 지적하겠다.

1. 한국교회는 교회의 모임과 건물과 설교하는 것을 강조해 왔으며, 대부분 교회에서의 설교하는 것을 강조해 왔다. 이것은 그 자체로는 모두 좋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기관이며, 건물이며, 모이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경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일 것을 강조한다. 구약성경은 이것으로 가득차 있다.

불신자들을 감동시킨 것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다윗의 행위, 솔로몬의 지혜, 요셉,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준 최상의 제자로서의 됨됨이다. 이들은 종교지도자나 정신적인 선지자나 구약교회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아니었다. 요셉,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다니엘, 에스더 등등 그들은 평신도들이다. 이들 평신도들의 대단한 신앙과 봉사와 순종의 탁월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대단한 한 부분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은 제도화된 교회의 정식 지도자인 교역자 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의 걸음으로 하나님을 봉사함으로써 신자들의 우주적인 제사장직과 왕적인 것이다. 그리고 바깥세계가 조직된 교회기관, 즉 교회의 가전적인 구조에서 보여주는 권력을 위한 내적분쟁이나 싸움이나 사랑의 결핍을 보게 된다면-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첫째로 우리 교회의 지도급 지도자들이 교단 상호간의 적대적 경쟁이나, 신학교나, 위원회, 교회 장로들과 총회 모임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라는 것이라면-거기에 협력이 있겠는가? 세상은 칭찬을 하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2. 지도자 연수를 위한 우리 교회학교의 커리큘럼-성경학교, 신학교-이 기관들의 커리큘럼을 문화적인 주제에 대해선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교회음악은 예외이지만.... 문화가 한때-나는 근본적으로 미술-혹은 우대 예술에 관해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원리에 따른 더 높은 목표와 탁월함(정점)을 향하여 모든 영역에서 생활을 의식하면서 영위해 나가는 것으로서의 문화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생활의 귀감, 생활방식, 가족제도, 경제생활, 여가생활, 종교생활 등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에 관하여 우리의 말과 언어로 증거하는 증거의 우수함이며, 일치함이며, 신실한 배경이다.

우리의 커리큘럼에 관해 다시 말하자.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가?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역사) 우리가 인간에 대해 거의 공부하지 않았을 때 다른 문화권에 선교사들을 보낸다고 우리 조국에 다소간이라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 분야를 전공한 타 대학 졸업자들이 우리 신학대학에 있

는가? 그들에게 무엇으로 격려했는가?

3. 서구교회에서 들어온 경건주의와 동방불교에 관한 피안의 강조점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신자들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대단히 무시하는 강조점을 설교하게 초래해왔다. 윤리적인 설교는 엄격하여 율법주의며 너무 단순했다. 그것은 자주 천박하며 폭이 좁다. 내가 때때로 생각하기는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대단히 전책하셨던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내려온 강한 유전이 있다.

한국교회가 참된 청교도운동의 후예라고 자각하는 곳에서 일지라도 John Donne나 Milton, Bunyan과 같은 시인을 배출하는데 그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후자는 한국에서는 훗날 좀 더 가능할 것이지만, 그리고 청교도의 노동윤리-단순성 겸약, 열심, 정직한 수고, 조심스러운 가사 돌봄과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직-에 대해 한국교회는 주는 것인 십일조와 관용을 강조하나 노동윤리에 관한 명백한 설교와 가르침은 거의 없다.

10. Incarnational Worship & Rehearsal Worship

최근 제3세계 교회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Orlando E. Costas가 쓴 놀라운 책이 한권 출판되었는데 그 제목이 매우 충격적이다. - *The Church and Its Mission; A Shattering Critique from the Third World* (Wheaton, Tyndale House 1974)

개혁전통과는 거리가 있을지라도 그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동인(motif)을 많이 다룬다. 그는 이따금 Bavinck와 거의 같은 말을 한다. 그의 주된 강조점 중의 하나는 두 종류의 예배를 대조하는 것인데 하나는 incarnational 예배이며, 다른 하나는 제전적인, 혹은 기념하는, 혹은 축하하는, 말로 하는 연극과, 암송하는 예배라고 말한다. 두번째 것은 한국에서 대단히 발달되어지고, 물론 그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인 백성들의 공예배는 내적 동의의 외부적표현, 내적 위임과 목적의 예배표현, 내적 신앙의 공적표현, 사랑과 언약의 의무로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고와 행위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크고 넓은 범위에 합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목은 책에 대한 것이고, 깃발은 역사적인 국가의식에 대한 것이며, 포스터는 실제적인 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인것과 같이 그것은 날마다의 incarnational 예배와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헛되며, 가설이며,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중요한 부분에는 열심이지 않고 파상적인 면에만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을 매우 격렬하게 꾸짖으셨던 이유를 설명한다. (마 23:23)

반복한다면, Incarnational 예배에 의하면 삶의 모든 측면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우리는 세상사람들 가운데서 각기 호호와 심장고동으로 육체와 피를 가진 예배자로 화육한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인간 몸으로 천국에 가신 이후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치유의 자비로 계속 나타내기 위해 이 세상에 남겨진 그의 몸이다. 이것을 외지 선교에게까지 확장하여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방인에게 가서 신약의 체계에서 참된 유대인의 참된 우수함을 보여준 것과 같이 오늘날 선교사도 그와

같이야 한다.

11. 문화와의 관계

그러면 이것은 문화와 어떻게 관련을 갖는가?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이 사용한 출19:4~6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언약 위임)을 다시 생각하자. 참된 문화로서의 교회-하나님의 백성이 이룩하는 통일성, 아름다움, 환경을 잘 가꾸는 것,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 보이는 실체, 환란 가운데서라도 용감하며, 인내하며, 즐거워하며, 모든 우주 가운데서, 특히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보여주는, 보이는 실체-이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한다.

한 외국 선교사로서, 나는 나 자신을 살펴야겠다. 선교사와 그가 파송하는 그룹은 큰 문제를 남긴다는 바빙크의 말에 나는 동의한다. 그것이 가장 큰 선교문제인지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장차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인 당신들에게 말한다. “당신은 큰 실수를 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아는가? 한국교회와 개개의 그리스도인들은 서구 선교사들 보다 그 문제들을 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이제 선교사역을 확장하기 위해, 당신의 날이 올 때 당신은 더 현명하게, 더 잘하게 될 것인가?”

Costas는 이를 잘 말하고 있다. “교회는 모든 문화의 사람을 포용한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교회는 그들이 각자의 문화를 부요하게 하며, 그들의 재능과 능력에 더한 깊이를 주며, 그들에게 풍요한 인간성을 회복케 한다”고.

사람으로 하여금 풍요한 인간성을 회복케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중을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교훈하심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자에너지, 질병의 균을 발견해서 조절하는 방법, 비행기와 TV와 X-Ray 기계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치 않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좋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는 인간성으로써 출발하며, 그것을 부요케 한다. 우선 회개와 신앙, 다음에 첫 걸음을, 그 다음에 둘째 걸음을……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백성들로 하여금 건물에 들어가게 하는 것과 외적인 종교적 습관 양식을 따르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며, 축하하며, 공포하며, 확정하기 위해 공예배의 좋은 관습과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개혁교회의 입장에서 쓴 Klaas Schilder의 책-*Christ & Culture*는 예수님을 문화의 구속주며 갱신자로 말한다. 이책의 34, 35페이지를 보면 “문화적 성취가 인간의 직무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의 행동이 문화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방법 내에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신 그리스도만이 전적으로 순수한 방법으로 행동하셨던 분이시며, 그분이 지금까지 문화적인 생활에 작용하고 계신다. 그분은 언행에 일치하시며, 문화적인 측면에서 첫 아담의 그것과는 멀리 떨어진 세계에서 일찌라도, 자신이 마지막 아담임을 친히 증명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자신을 내 맡기는 모든 상황에 직접 관련하여 반응하신다. 사

실로 문화적인 상황과 복잡함에 대해 충분하고, 순수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반응하며, 본래의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것 보다 더 직접적인, 문화적인 행동은 어떤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이어 그는 “말씀이시며, 중재자이시며, 보증으로서 그분은 실재며, 굳건한 기초이시며, 본래의 터이시며, 성취자이시며, 구속주며, 문화의 갱신자이시다.”라고 답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Schilder는 바울이, 모든 제왕들과 대제국의 영광보다, 쇠고랑을 차고 로마에 도착한 때, 세상을 위한 문화에 더 의미를 부여한다고 본다. 천막 만드는 자이며 죄수인 바울이 문화를 위해, 왕좌에 앉아있는 제왕보다 더 중요하다.

12. 오늘날을 위해 필요한 것들

1. 한국교회는 외지선교에 열심을 불붙여야 한다. 그것은 젊은이들, 평신도들 간에 이미 되 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상 정복을 위해 보냄받는 대신 요새를 지키는 자인 교회 지도자들 간에는 아직 적다. 해외로 나간 많은 선교사들은 한국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다. 극소수의 선교사들만이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cross-cultural 선교사들이다.

Jacob A. Lowen은 “선교사들은 신실하며 지칠 줄 모르게 일해 왔다. 그들은 병 고침과 가르침과 복음전파 사역에 자신을 헌신했다. 그러나 그들은 간혹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위한 품미로써 교회를 포용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Culture and Human Values* pp. 72, 73에서 말하고 있다.

2. 한국교회는 외지선교를 위해 남녀를 훈련시켜야 한다. 신학교는 Contextualization, 기독교 문화 인류학에 관한 학과목을 가져야 한다. 한국교회는 우리가 복음이 깊이스며 들어가기를 추구하는 종교를 연구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고신과 합동)에서 비교종교에 대해 내가 가르칠 때, 어떤 한국 교수도 이 분야를 전공하지 않고 대개 한과목으로 이 넓고 복잡한 연구분야에 할당되어져 있는 (서구사상, 종교, 역사, 문화에 관해 많은 것과 비교하면) 것이 나를 놀라게 하며 슬프게 한다.

그리고 역시 불교, 유교, 샤머니즘에 젖은 사람들 가운데서 신학교에 온 신학생들이 이런 종교적인 배경을 지극히 조금밖에 모르며, 심지어 배울려는 관심 조차도 거의 갖지 않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바울이 헬라철학을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를 생각해 보라.

3. 기독교 문화-증거의 수단으로써, 그리고 바울과 같이 강대한 장부는 인간이 그의 배경인 신앙의 부요한 특권을 가지고 새로운 개척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곳에서, 인간에게 풍요한 인간성을 회복케 하는 수단으로써-우리가 이 분야를 연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4. 우리는 신구약의 메시지 연속성을 연구해야 하며, 복음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주어진 모범, 이미지, 예들-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하며, 의미있는 언어로 우리의 청중들의 가슴에 스며들어야 한다.

5.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몸으로 우리의 통일성을 회복하며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다리일 수 없고, 함께 일하지 않는 손들일 수 없고, 감겨진 눈들일

수도 없다. 우리 자신의 가증한 손으로 흘린 우리 자신의 피를 지니고 있을 수 없다.

Schilder는 말한다. “목적론적으로 나아가는 문화를 이룩하는 것은 개인적인 직무가 아니라, 오히려 강한 교제의 직무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 (Koinonia)”에 관련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역시 문화를 위해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교회로 부터 순종의 불꽃, 순수한 문화적인 작열은, 전 세상 앞에서 타올라야 한다.……신자들의 어머니로서 오직 한 교회는 ‘새로운’ 사람, 즉 문화적인 삶이 관련되어지는 한 전 세계의 짐을 지는 그런 사람이 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문화의 가장 작은, 직접적인 중심만이어서는 안 되며 가장 위대한 간접적인 문화적인 힘이어야 한다.”라고 Schilder 자신이, 문화적인 힘이라는 말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6. 우리는 생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으로서, 특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길들을 세상 앞에 우리의 백성됨을 표현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멧세지로서 우리가 뜻하는 바를 보일 것이며, 그것이 역사함을 증거할 것이다.

INTERPRETATIONS OF THE MEANING OF THE SON OF MAN: A HISTORICAL STUDY OF THE CHRISTOLOGICAL TITLE

T. KITAI HAHN, PH. D.

I. Introduction

II. Origin of the Son of Man Concept

III. Interpretations of the Meaning of the Son of Man Concept

A. The Typical, Ideal, Representative Man: Schleiermacher, Neander, Trench, Tyler, et al.

B. To Emphasize Humility and Weakness: Bauer, Colani, Abbot, Wendt, et al.

C. To Signify a Corporate Concept……the Remnant Idea: T. W. Mansoh

D. To Make Use of the Old Testament Concept of The Servant of Jehovan with the Notion of Majesty Found in Enoch: R. H. Charles

T. To Be Expressive of Primarily Transcendental Messianic Character: Warfield, Stonehouse, Vos, Ridderbos, et al.

IV. Conclusion

I. Introduction

Numbers of titles and designations applied to Jesus occur with great frequency in the Gospels as well as in the Epistles. Lord,¹⁾ Christ, Master, Teacher, Saviour, Son of David, Son of God, Son of Man,²⁾ etc. are of common occurrence and the numbers

1) Stauffer says that the title *κύριος* is the richest of all the Christological titles. *Vide New Testament Theology* (New York: Macmillan Co., 1955), p. 114.

2) In the title the Son of Man the divinity and majesty of Christ are so uniquely expressed that Vos characterizes it as the “greatest and most celestial of all titles.” *The Self-Disclosure of Jesus* (Grand Rapids: Eerdmans, 1954), p. 254. According to G. F. Wright, the title Son of Man as used by Christ “taken in its whole contexts and implications is a more exalted expression than ‘Son of God’.” “The Son of Man,” *The Bibliotheca Sacra*, XLIV (1887), 595.